

03

DIGITAL STORYTELLING

PROJECT BY
FOREVER-CULTURE

21861044_김태형

21861080_유상혁

21861070_신재연

21861095_이윤지

CONTENTS

1. 문제점 도출 및 주제 선정
2. 페르소나를 통한 구체화
3. 레고를 이용하여 시각화
4. 결과 및 기대효과

문제점 도출 및 주제 선정



VR 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용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 할 것인가?



5대 궁궐중 경희궁



지금은 일부분만 남아있는 상태

그래도 나중에 복원되지 않을까?



경희궁 종합정비 기본 계획에 따른
복원 예상 범위는 오른 쪽 사진과
같이 2035년까지 복원을 할 예정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함께 추진해온 경희궁 복원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전체 복원 계획의 첫 사업이던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 철거와 돈의문(서대문) 복원 및 역사문화공원 조성이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연기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문화재청 측은 “당초 계획대로 복원하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경희궁을 완벽히 복원하긴 매우 어려움.

결국...

우리는 다시는 완벽한 모습에 '**경희궁**'을 볼 수 없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 FOREVER CULTURE는 경희궁을 타깃으로한 VR을 기획!

페르소나

페르소나 & 사용자 NEEDS



샘 오취리는 휴가를 이용하여 친구들과 한국을 방문했다.

평소에 한국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한국의 아름다운 궁들의 사진을 찾아보는 등 한국 전통의 관심이 많다.

“ 한국에 방문차 한국의 궁들이 궁금해서 경희궁을 방문해 보았는데 현재의 궁이 일부분이라는것을 알고 본래의 모습이 궁금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샘 오취리

나이: 32세

외국인

한국 경희궁에 방문했던 샘 오취리는 기대에 가득찬 상태로 경희궁을 방문했었으나 예상했던 궁의 모습이 아닌 일부의 궁의 상태만 남아있었다.

영어로 쓰여있던 정보들도 오취리가 만족할 만한 정보의 수준과 양에 미치지 못하였다.

아름다운 궁의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래의 궁에 대한 궁금증



“한국에 방문차 한국의 궁들이 궁금해서 경희궁을 방문해 보았는데 현재의 궁이 일부분이라는것을 알고 본래의 모습이 궁금한데 어떻게

#본래의 궁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

샘 오취리

나이: 32세

외국인

샘 오취리는 휴가를 이용하여 친구들과 한국을 방문했다.

평소에 한국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한국의 아름다운 궁들의 사진을 찾아보는 등 한국 전통 문화에 많다.

#부족한 영어버전의 정보

한국 경희궁에 방문했던 샘 오취리는 기대에 가득찬 상태로 경희궁을 방문했었으나 예상했던 궁의 모습이 아닌 일부의 궁의 상태만 남아있었다.

영어로 쓰여있던 정보들도 오취리가 만족할 만한 정보의 수준과 양에 미치지 못하였다.

아름다운 궁의 모습을 둘 눈으로 직접보기에는 여려움이 있다.

#가나의 돌아가면 다시 보러오기 어려움



“중학교 아이들에게 역사 유적지를 조금 더 생생하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김지석

나이: 4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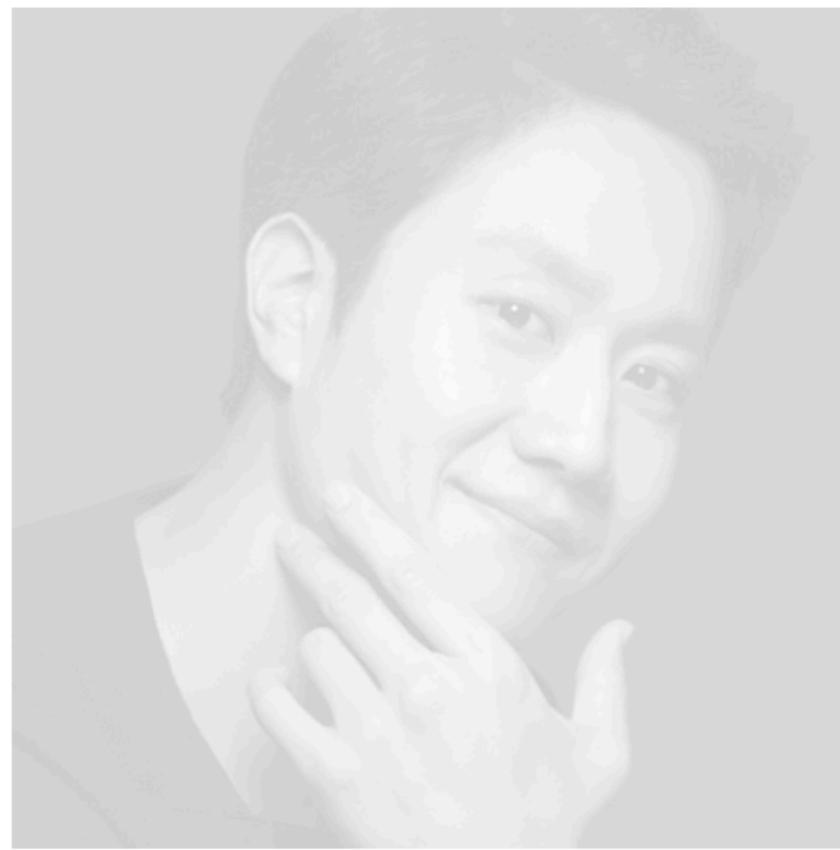
직업: 중학교 역사선생님

40대 김지석씨는 갈뫼중학교 3학년의 역사 선생님이다. 자신의 반 아이들과 함께 역사 답사를 가기로 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의 유적지가 남아있지 않다.

이번주 수요일에 3학년 반 아이들과 체험학습으로 경희궁을 가기로 했다

경복궁에 도착했지만 남아있는 경희궁보다 없어진 경희궁이 더 많았다. 복원 되어 있는 지도나 작은 미니어처들은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는 일도 쉽지 않았고 원하는 정보 또한 한눈에 보기 어려웠다. 결국 학생들이 집중을 하지 못했고 현장체험학습은 그렇게 끝이 나버렸다.

학생들의 집중을 끌 수 있으면 생생하게 경희궁을 보고 싶었지만 소실된 경희궁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미니어처나 지도밖에 남아있지 않아 원하는 정보를 한 눈에 보기 어려웠다. 지도나 미니어처로 설명을 하면 그저 교실에서 듣는 역사수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없어진 경희궁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40대 김지석씨는 갈뫼중학교 3학년의 역사 선생님이다. 자신의 반 아이들과 함께 역사 답사를 가기로 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의 유적지가 남아있지 않다.

이번주 수요일에 3학년 반 아이들과 체험학습으로 경희궁을 가기로 했다

“중학교 아이들에게 역사 유적지를 조금 더 생생하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1. 중학생 아이들에게 생생하게 궁궐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음

나이: 40세

직업: 중학교 역사선생님

#2. 복원된 궁궐의 자료가 부족함

경복궁에 도착했지만 남아있는 경희궁보다 없어진 경희궁이 더 많았다. 복원 되어있는 지도나 작은 미니어쳐들은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는 일도 쉽지 않았고 원하는 정보 또한 한눈에 보기 어려웠다. 결국 학생들이 집중을 하지 못했고 현장체험학습은 그렇게 끝이 나버렸다.

#3. 복원된 자료는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가 남아있지 않음

학생들이 궁궐을 찾을 수 있도록 생생하게 경희궁을 보고 싶었지만 살펴본 경희궁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미니어처나 지도밖에 남아있지 않아 원하는 정보를 한 눈에 보기 어려웠다. 지도나 미니어쳐로 설명을 하면 그저 교실에서 듣는 역사수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없어진 경희궁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다른나라 모두에게 진실된 역사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김남주

나이: 48세

직업: 문화재 해설 가이드

40대 김남주씨는 고궁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어나 한국어로 해설해주는 가이드이다. 오늘도 고궁 해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보가 많이 없는 손실된 경희궁에 대하여 질문이 들어와 대답해주지 못한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궁을 돌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경희궁을 설명해주고 있다.

홍화문과 숭정전을 돌아다니며 설명을 해주고 대부분의 선물들을 손실이 되어 볼 수 없다고 설명을 하는 도중 관광객이 손실된 경희궁의 궁궐 이름이나 규모 등 자세한 질문들을 물어보자 대답을 해 주지 못하게 된다.

소실된 경희궁은 남아있는 궁궐 터도 없어 어디까지가 경희궁의 면적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며 없어진 궁궐들도 자료들이 없어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도 없다. 하여 소실된 경희궁에 대한 이미지나 영상 등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나라, 다른나라 모두에게 진실된 역사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1. 관광객들에게 소실된 궁궐을 한 눈에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나이: 48세

직업: 문화재 해설 가이드

40대 김남주씨는 고궁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어나
한국어로 해설해주는 가이
드이다. 오늘도 고궁 해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보가 많
이 없는 손실된 경희궁에
대하여 질문이 들어와 대답
해주지 못한다.

#2. 소실된 궁궐의 자료가 부족함(궁궐 터, 궁궐의 쓰임새, 이미지 등)

정해진 시간에 맞춰 궁을 돌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경희궁을 설명해주고 있다.
홍화문과 숭정전을 돌아다니며 설명을 해주고 대부분의 선물들을 손실이 되어 볼 수 없다라
설명을 하는 도중 관광객이 손실된 경희궁의 궁궐 이름이나 규모 등 자세한 질문들을 물어보
자 대답을 해 주지 못하게 된다.

#3. 복원된 이미지 자료는 1차원적인 이미지 밖에 없어 흥미가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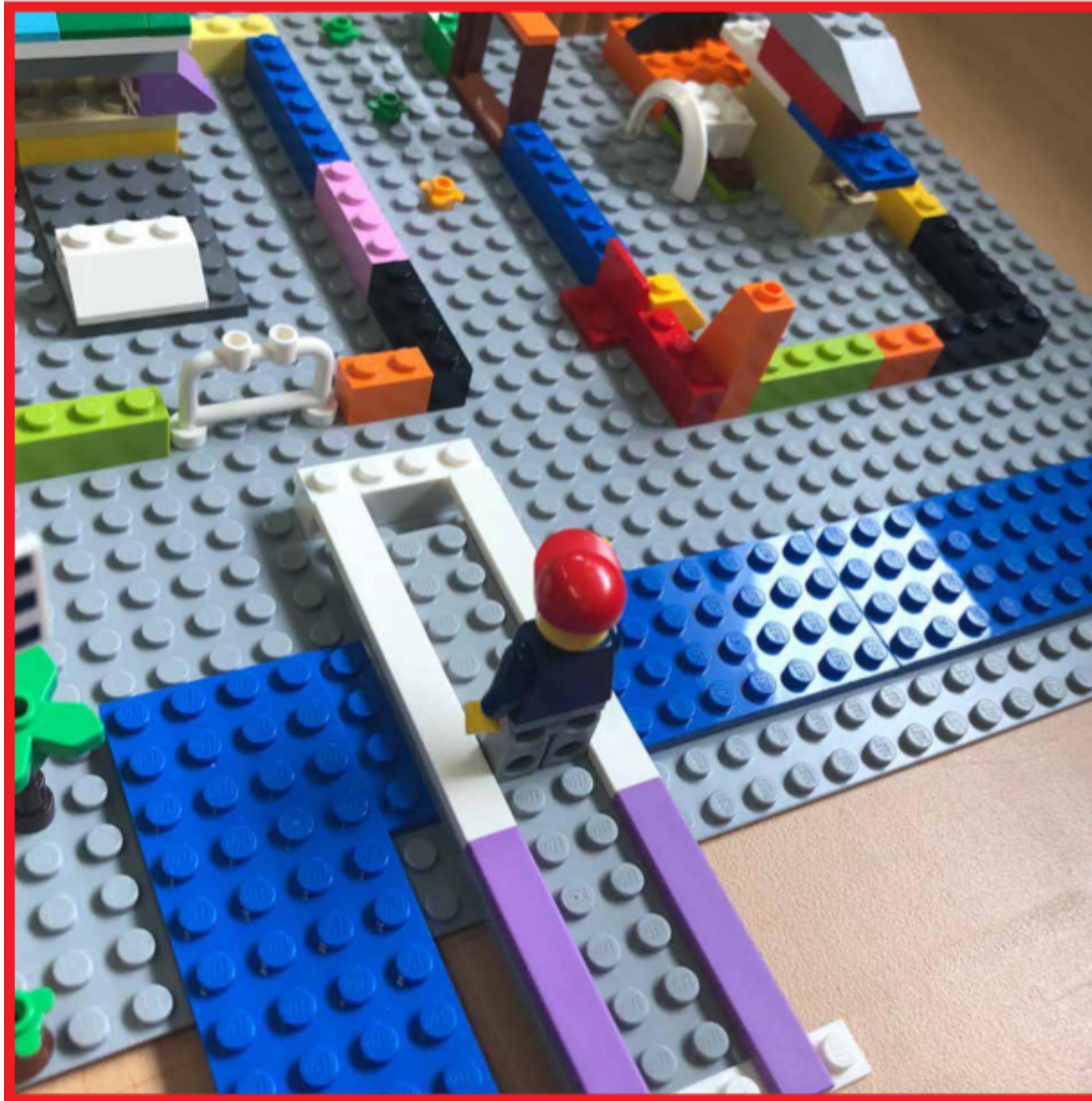
소실된 경희궁은 남아있는 궁궐 터도 없어 어디까지가 경희궁의 면적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
르며 없어진 궁궐들도 자료들이 없어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도 없다. 하여 소실된 경희궁에
대한 이미지나 영상 등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레고를 이용한 시각화



레고를 활용하여 경희궁과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

레고활용 페르소나 설정



레고블럭을 활용한 시나리오 정황

핵심이되는 경험 장면 1

가상현실을 통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경희궁 주변에
흐르던 천 주위를 걸어보며 주변을 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레고활용 페르소나 설정



레고블럭을 활용한 시나리오 정황

핵심이되는 경험 장면 2

가상현실을 통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충정문 앞에
일직선으로 펼쳐져 있던 대로를 걸어보며 원래 존재했던
경희궁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레고활용 페르소나 설정



레고블럭을 활용한 시나리오 정황

핵심이되는 경험 장면 3

가상현실을 통해 경희궁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몸이
불편하거나 멀리 사는 사람들이 경희궁의 실제모습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레고를 이용한 콘텐츠 디테일



레고를 이용한 콘텐츠 디테일_1

경희궁 내부의 모습을 디테일하게 표현
(접근이 어려운 궁 내부에 접근할 수 있음)



레고를 이용한 콘텐츠 디테일_2

VR을 통해 경희궁 내부를 재현하여 보여준다.
앞에서는 문제를 통해 경희궁에 대한 궁금한 점을
더 알아가는 모습을 구성



레고를 이용한 콘텐츠 디테일_3

FOREVER CULTURE 가 프로젝트에서 만든 VR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실제와 비슷하게 안내문 역할을 하는
키오스크를 체험 가능함.
외국인도 이 VR을 경험할 수 있기에 여러가지 언어로
설명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AI 정보구조 설계

정보구조설계

VR(가상현실) 접속

가상 일반적 루트

경희궁 입구

신문로

숭정전

그 외

경희궁 건물 위치 안내, 경희궁 관련 전체적인 이야기 전달

신문로에 관한 이야기, 정보 전달

숭정전에 관한 이야기, 정보 전달

결과 및 기대효과

결과 및 기대효과

현재 볼 수 없는 공간의 경희궁 모습을 복원함으로서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관심을 갖게하는** 계기가 됨으로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흥미**를 끌어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으며
영어 혹은 해당 국가의 언어로 간단하게 되어있는 설명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가능하니
교육과 이해에 측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된다.

현재

#소실된 #복원하기어려운 #다시는 볼수없는
문화재 혹은 유적지를 가상현실[VR]을 통하여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마치며



윤지 : 이번 프로젝트로 우리나라의 유적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없어진 유적지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정말 우리나라가 VR로 없어진 문화 유적지를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재미있는 프로젝트였다.



재연 : 기획 과정에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 정말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구나를 알게 되고 안타까웠으며, 레고로 시나리오, 콘텐츠 기획을 설정하는 것도 새로웠고 기억에 많이 남는 프로젝트일 것 같다.



태형 : 경희궁은 복원하기 어렵기에 VR로 대체하자는 기획 자체가 너무 맘에 들었다. 조원들도 자료조사를 너무 열심히 해주고 레고로 콘텐츠 구체화를 하는 과정에서 더욱 더 마음이 맞았기에 좋은 프로젝트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나오면 꼭 체험을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상혁 : 브이알 콘텐츠 기획을 하며 가상현실에 많은 관심이 생길 수 있는 기회였던거 같습니다. 브이알 콘텐츠를 만들 때 엄청난 자본이 투여된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THANK YOU !